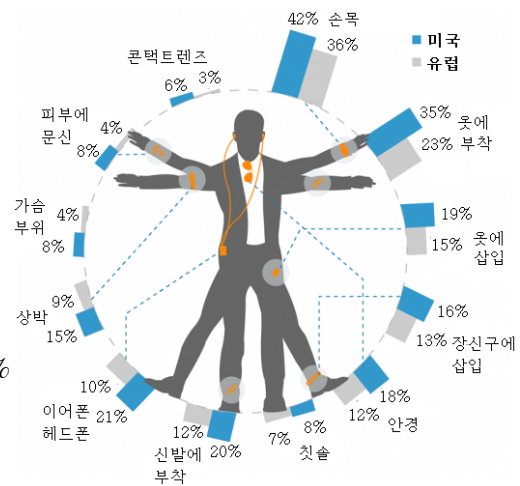


포레스터 발표, 2014년 웨어러블 시장의 5대 트렌드

-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 리서치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‘LeWeb 2014’ 컨퍼런스에서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
 - 포레스터는 웨어러블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단언하면서 웨어러블의 근미래에 관한 “5가지 트렌드”를 발표
 - 우선 첫 번째 트렌드에서 소비자 관심도를 보면, 이미 미국 소비자의 10%, EU 소비자의 4%가 인체활동 추적기 및 피트니스 기기를 사용 중이며, 또한 웨어러블 기기 구매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45%와 32%에 달함
 - 웨어러블에 대한 관심은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으며, 미국 소비자의 40%, 유럽 소비자의 21%는 스마트폰을 빈번히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이 번거롭다고 응답
 - 따라서 가격만 적정하다면 구글글래스를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미국은 43%, 유럽은 25%로 나타남

- 센서와 기기를 신체의 어떤 부분에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손목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
 - 손목 밴드와 스마트 시계를 차는 ‘손목’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은 미국이 42%, 유럽은 36%였으며, 옷 바깥에 착용을 원한다는 응답도 각각 35%, 23%로 높은 편
 - 피부에 삽입하거나 콘택트렌즈형 장치의 사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3~8%에 그쳤지만, 포레스터는 신체의 모든



<자료>: Forrester Research, 2014. 12.

(그림 1) 웨어러블 착용 선호 부위

*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(☎ 042-612-3158)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중훈 집필위원 (soma0722@naver.com ☎ 02-739-630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**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

- 부위에 웨어러블을 착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알 수 있었다고 분석
- 연도별 수요 변화를 보더라도, 미국의 경우 2013 년과 2014 년 조사를 비교한 결과, 손목은 28%에서 42%, 이어폰은 12%에서 21%, 안경은 12%에서 18%로 증가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
- 이번 조사에서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약 1 년 정도 수요가 뒤쳐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과거 유럽은 기술 수요에서 미국에 2~3 년 정도 뒤쳐져왔음을 감안하면, 웨어러블에 대한 관심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
- 단, 이번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웨어러블 제품이 매력적인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응답률이 실제 수요로 이어진다는 단순 가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
- 두 번째와 세 번째 트렌드는 기업들도 웨어러블 장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
 - 자사 비즈니스 환경에 웨어러블 기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(매우 높다, 높다, 높은 편이다)고 응답한 비율은 52%에 달함
 - 기업 활용의 구체적 사례로는 2014 년 5 월부터 호놀룰루 공항에서 구글글래스를 시범 도입한 일본항공을 꼽았으며, 정비작업과 화물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경형 장치로 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핸즈프리 작업환경을 구축한 사례
 - 버진애틀랜틱 항공 역시 고객 서비스에 안경형 (그림 2) 항공사 정비 업무용 글래스 장치의 활용을 시작하여 지상의 직원이 환승 정보 등을 승객에게 제공 할 때, 터미널의 안내 데스크가 아니라 승객이 당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고객만족 효과를 거두고 있음
- 네 번째 트렌드로는 언뜻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장소에서도 웨어러블 기술이 점차 활용되어갈 것이라는 점
 - 패션 브랜드 랄프로렌은 심박수 등 생체 정보를 모을 수 있는 티셔츠를 캐나다의 OMSignal 과 공동 개발했으며,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시범적으로 도입



<자료>: re/code



<자료>: Given Imaging

(그림 3) 내시경 카메라를 탑재한 캡슐형 웨어러블 필캠(PillCam)

- 또한 이스라엘의 Given Imaging 이 개발한 캡슐 내시경 ‘PillCam(필캠)’은 캡슐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로 인체 내부를 촬영
- 마지막 트렌드로는 웨어러블 시장에서 서비스가 충실해져 가는 흐름을 들었으며, 이는 IT 거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
 - 포레스터 리서치는 클라우드와 연계한 대표적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‘Health Intelligence Engine’, 애플의 ‘HealthKit’, 삼성전자의 ‘S Health’ 등을 거론
 - 이들 플랫폼 서비스들이 충실해질수록 몸 전체를 덮는 웨어러블 네트워크가 가속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
- 한편, 포레스터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트렌드를 감안할 때, 애플은 확실히 시장을 휘젓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, 2015년 봄 출시될 애플워치가 소기의 판매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
 - 이전과 달리 최근 웨어러블에 관한 논의에서 ‘패션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, 이런 흐름에 촉매가 된 것이 바로 애플 워치
 - 소비자들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한 혜택을 원한다는 사실로서, 애플 워치는 기능성과 패션, 두 가지 면에서 충분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
 - 포레스터는 애플 워치가 2015년 한 해 동안 1,000만 대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, 이는 애플이 희망하고 있는 전환율에 따른 판매대수이기도 함
- 애플워치에 대한 포레스터의 평가가 정확하다면, 애플 워치의 양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판매대수는 1,000만 대를 상회할 수 있을 전망
 - 애플워치는 부품 수율이 낮아 생산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었고, 애플 온라인 스토어 수석 부사장 역시 애플 워치 발매 시기는 2015년 3월 이후가 될 것이라 시사한 바 있음

- 그러나 최근 대만 연합재경망의 소식에 따르면, 부품 수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이르면 2015년 1월부터 애플 워치의 양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
- 디스플레이와 프로세서, 케이스 등 주요 부품의 공급업체들은 최근 수출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하며, 양산을 맡은 대만의 Quanta Computer는 당초 300만~500만대를 제조할 계획이었으나, 애플은 2015년에 2,400만대 생산을 주문했다고 함
- 2,400만대는 2014년 반년 동안의 아이패드 판매대수와 거의 같은 수치이며, 이에 따라 금년도 직원 수를 3,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 Quanta는 애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에 다시 3만~4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함
- 한편 연합재경망은 아이폰 차기 모델이 2015년 봄에 나온다는 소문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는데, A9 프로세서 등 새로운 부품이 아직 발주되지 않고 있기 때문
(ZD Net, 12. 10. & Forrester Research, 12. 11. & AppleInsider, 12. 11.)